

공동체 소식

위령 성월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집회 7,33)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자선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속죄로
묵은 인간' 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 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기도지향

- 안병환(발렌티노), 안현숙(크리스티나) 가정
-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가정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로서 우리가 받은 은총과 사명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수감사절'을 미리 기념하며 점심식사와 막걸리, 김치전을 나누려합니다. 공동체 모든 분들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 준비

- 일시 : 11/25(일) 중심미사 후
- 주관 : 사회복지분과, 시설분과, 전례분과

가톨릭 교리 통신 교육 안내

- 대상 : 입교를 원하는 예비자
- 주관 : 북미주 가톨릭교리 통신교육
- ☞ 자세한 내용은 11월 매일미사 책, 12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오늘, 구역분과 기금마련(주방비품교체) 떡국떡과 절편을 판매합니다.
- 성당의 주방집기(특히 국대접)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리턴 바랍니다.
- 2012년 각 분과 재정보고서 및 2013년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11/25) 중심미사 후, 평협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마 침 |
|-----|-----|----------|-----|
| 31 | 216 | 163, 164 | 462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항 복사 |
|------|------------|------------|
| 이번주일 | 정준구(파비아노) | 안동현(프란치스코) |
| | 정병훈(보니파시오) | 안지영(카타리나) |
| 다음주일 | 고영방(스테파노) | 정수한(베 드 로) |
| | 고평원(프란치스코) | 정예찬(미 카 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제대봉사 | 제2독서 |
| 이번주일 | 박혜정(카타리나) | 차호섭(요 셉) |
| | 김수연(율리안나) | 최선윤(마 리 아) |
| 다음주일 | 김주연(세실리아) | 조장군(바 오 로) |
| | 박혜정(카타리나) | 우정숙(아나타시아) |

애찬 봉사자

| | |
|------|---------------------------------|
| 이번주일 | 신혜경(마리아) 박혜정(카타리나), 유경애(아네스) |
| 다음주일 | 최선윤(마리아), 정연숙(막달레나) |

헌금 봉사자

| | | |
|------|------------|----------|
| 이번주일 | 김태중(예레미아) | 정수한(베드로) |
| 다음주일 | 최은미(아 네 스) | 문석찬(요 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1월 11일>
- 미사참례 : 78명
- 주일헌금 : \$385
- 교 무 금 : \$154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33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는 종말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정성 들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대구 관덕정

대구대학교, 대구시 중구 남산 2동 소재.

대구 관덕정은 조선 시대 무과의 하나인 도시(都試)를 행하던 곳으로 연병장 가장자리인 아미산 처형장에서 천주교인들이 순교하면서부터 성지가 되었다.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설치되면서 경상도 전역에서 체포된 교우들이 대구로 이송되어 옥사하거나 처형되었다. 대구에서 순교한 이윤일 순교자의 시성을 계기로 유해를 모시면서 관덕정은 순교성지의 모습을 갖추었다. 대구대학교는 이윤일 성인을 교구의 제2주보로 선포하고 1991년 순교기념관을 개관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 서 : 다니 12,1-3 <그때에 네 백성은 구원을 받으리라.>



주 님 저 를 지 켜 주 소 서 당 신 께 피 신 하 는 이 몸 이 오 이 다.

○ 주님께서는 저의 기업 제 잔의 몫이시니 저의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제 앞에 모시오니 제 오른쪽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오리다. ◎

○ 그러기에 제 마음 즐겁고 영혼은 붓놀고 육신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제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 두시리다. ◎

○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쪽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

제 2 독 서 : 히브 10,11-14.18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예물로, 기록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복 음 : 마르 13,24-32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쉐 마

“하느님이 주시는 미래”



교회 전례(典禮)의 주기(週期)는 12월초, 대림 첫 주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 해 11월 말,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끝납니다. 전례주년(週年)이 끝나가는 시기, 곧 오늘과 같은 날에는 미사 복음으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이 세상 종말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당연히 유대교 묵시문학의 언어를 상기합니다. 묵시문학은 기원 전 2세기 유대인들이 남긴 문서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그 문헌에 익숙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세상의 종말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그 문헌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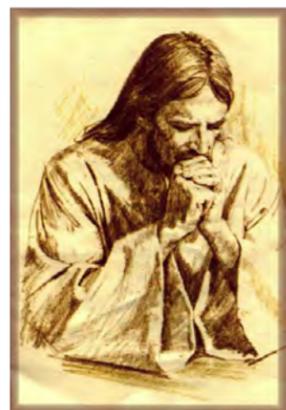
오늘 복음이 세상의 종말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전의 파괴, 전쟁과 반란,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 박해 등이 모두 유대교 묵시문학에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하느님의 미래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운동하며, 건강식품과 보약을 먹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미래를 얻기 위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려 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미래를 살자는 운동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미래만이 참다운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재물과 권력을 얻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다가 올 때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마르 14,36)라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당신 안에 이루어질 것을 빌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내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보장하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의 미래를 찾아 나서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나 한 사람을 치장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삶입니다. 한번 하는 모험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모두 예행연습이 없는 모험입니다. 인간이 하는 소중한 일들은 모두 이렇게 연습도 없이, 준비된 대사도 없이, 보장된 것도 없이 감행해야 하는 모험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면, 반드시 실패하는 모험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사는 일도 하나의 모험입니다. 보고 확인할 수도 없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 모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신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 모험의 결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마중물

식사기도의 효과

사람은 먹어야 하는 존재다. 어쩌 사람뿐이겠는가? 모든 생명체가 먹어야 한다.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일상적이다. 하루 세 번씩 음식을 대하기 마련인 인간들, 그 개성과 모습이 다르듯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다양하다.

같은 음식이나고 짜증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고, 무덤덤하고 의례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고 감격적인 자세로 음식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음식을 주신 하느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 수고한 분들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미국의 의사 존 자 (John Jaweet)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서는 어느 사람들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세 가지의 특이한 분비물이 나오더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첫째는, 연구자인 존 자 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은 결코 그만의 주장이 아니다. 이 기도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기능을 향진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부단히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도 후에는 항독소(抗毒素)라는 물질도 분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 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으며 살균을 해 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에 까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셋째로, 안티셉틴(antiseptin)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한다고 한다.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작용을 한다.



유머 게시판

“놀부의 시계”

놀부가 죽어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갈림길에서 있었다.

놀부가 이리저리 둘러보니, 여기저기 시계들이 보였다.

놀부 : 여긴 왜 이렇게 시계가 많죠?

천사 : 저 시계들은 자신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시계예요.

그 말을 듣고 놀부는 자신의 시계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는 보이지 않았다.

놀부는 의아한 마음으로 천사에게 물었다.

놀부 : 전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해서 시계가 없나보죠?

그러자 천사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천사 : 놀부님 께 너무 빨리 돌아서 예수님이 선봉기로 쓰고 계십니다.

